

전남도, 대규모 숲 조성 나섰다

하늘·바람·섬·땅 어우러져 10년간 1500억 경관·소득숲 테마 주민소득·관광 자원 활용

전남도가 향후 10년간 15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숲 조성에 나선다.

27일 도에 따르면 민선 7기 핵심 프로젝트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선도 사업으로 남도의 하늘, 바람, 섬, 땅이 어우러진 대표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발 빠르게 신규사업을 발굴해 기존 사업을 확대·보완코자 올해 사업비 110억원을 확보했다.

대표숲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 '경관숲'은 남도의 역사·문화·인물이 어우러진 해양숲과 관공숲, 지역특화숲 테마로 조성된다.

또 '소득숲'은 지역의 기후·산업화를 고려한 전략수종을 소득과 연계해 견과류단지, 밀원단지, 약용단지로 특화해 각각 조성할 계획

이다.

'경관숲'은 7개소에 대표 콘텐츠 테마숲으로 조성된다. 해양숲 2개소는 서남해 중심, 관공숲은 해남 두륜산에 오색숲 조성, 지역특화숲 4개소는 영암 월출산 주변 기찬빛길 향기숲 조성, 보성 일립산 산철쭉 숲 확대, 담양 죽녹원과 연계한 제2의 대나무 힐링숲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해양숲은 올해 신규 국고 사업으로 확정돼 2029년까지 16개 시·군 3700ha에 37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서남해안 섬숲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신안군에 1000ha 규모의 대표숲을 조성하며 올해 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해 훼손된 난대숲을 복원할 계획이다.

'소득숲'은 6차 산업화와 연계



전남도의 소득경관숲 시범사업로 선정된 보성 일립산철쭉.

코자 △영광 견과류 웰빙숲 500ha △화순 벌꿀숲 30ha △광양 봉강면 일원 10ha에 복분자단지를 조성한다. 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담배인삼공사에 전량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광양 옥룡사지 일원의 동백숲을 복원에 산업화를 위해 백계산 동백숲 300ha도 조성된다.

이와 함께 전남도 주민·단체와 함께 생활주변 크고 작은 아름다

운 숲을 지속적으로 조성기로 하고 올해 구례 산수유 숲, 보성 녹차골 쉼터숲 등 22개소에 40억원이 투입된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대규모 경관·소득숲을 전남도 미래 대표숲으로 조성하겠다"며 "숲의 가치를 높여 주민 소득과 연계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동명동에 착한임대료 바람 분다

광주 동구는 지난 27일 상인과 건물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명동체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동명동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정수준의 임대료유지 상생협약(렌트리피케이션 방지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의회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료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5~15%까지 자율적으로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서구 상록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선정

광주 서구 상록도서관이 '2020년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지역문화에 접근성 향상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문화가 있는 날'이 속한 주간에 공공도서관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상록도서관은 매월 마지막 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지공예 프로그램, 대출증지 이용자 해체, 대출권수 2배 이벤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남구, 5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 조사

광주 남구는 27일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진행된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은 총 2만6,585개로 파악됐다.

건물 번호판이 2만2,248개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도로명판 4,320개, 기초번호판 10개, 지역 안내판 7개이다.

북구, 청소년 문화카페 지원 사업 추진

2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청소년 문화카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공동체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소모임·취미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28일까지 공간·주체·기능적 요건을 갖춘 보조사업자 3개소를 모집해 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자는 연면적 33㎡ 이상의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청소년기 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마을공동체(15인 이상 주민 참여),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이다.

광산구, 행안부 다문화정책대상 우수상

광주 광산구는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제7회 다문화정책대상'에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 수요 맞춤형 특화 시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다문화정책대상은 다문화정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와 기관을 선정해 알리는 상. 광산구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이번 평가에서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활동 등 5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2012년 광주 최초로 다문화정책팀을 신설해 외국인주민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일조해왔다.

임형택 기자

광주시,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7명 추가 모집

월 최대 160만원씩

광주시는 지역 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인건비 및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실업 해소,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 우수 인재의 역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지역 91개 기업에 13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7명의 추가 기업모집을 통해 청년 1인당 월 최대 160만원(인건비의 80%)을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참여 청년의 기본교육 및 애로사항 점검 등 컨설팅, 현장활동 지원비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에 3월4일부터 6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itp.or.kr)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씨엔텍 홍종의 대표는 "코로나 19로 인한 중국 수입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사업 지원으로 인건비의 8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구중천 시 일자리정책관은 "지원사업이 코로나 19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지역 전략산업의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79년 9월20일 당시 전남경찰국 회의실 모습.

옛 전남경찰국 회의실 등 사진 73점 발굴

광주지방경찰청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지원할 의미있는 사진자료 73점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문화관광체육부의 '옛 전남도청과 전남경찰국 복원사업' 지원을 위해 '경찰사료 발굴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지난해 12월부터 5·18민주화운동 전후 근무 경찰관

과 국가기록원 등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고(故) 안병하 치안감 유족과의 만남을 통해 1979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전남경찰국 장실과 회의실 등 배경 사진 63점을 확보했다. 또 전남경찰국에 근무했던 경찰관들에게 수집한 사무실 사진 10점도 확보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인문진흥재단
Korea Human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5월

240,833원

1.1배

4월

125,531원

1.7배

3월

79,147원

2.1배

2월

48,103원

2.7배

1월

26,697원

5.3배

고소득층 | 중위 | 저소득층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